

우리의 비전 Vision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여 복음으로 열방을 축복한다"

우리의 사명 Mission 주님사랑 (Love Jesus) / 영혼사랑 (Love Souls)  
복음전파 (Share Jesus) / 인재양성 (Raise Spiritual Leaders)

**장년부 예배 안내**

주일예배 1부 8:30 am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 한국어

2부 11:00 am 찬양과 말씀의 감격이 있는 예배 / 한국어

EM & YM 11:00 am 열정이 넘치는 예배 / 영어

새벽 기도회 화 - 토 6:00 am

목자 모임 수 8:00 pm

**교육부 예배 안내**

영아(0세)부터 고등부(12G) 까지

주일학교 11:00

중고등부 11:00 (Zoom as well)

유치 &유초등부 수 7:30 pm (On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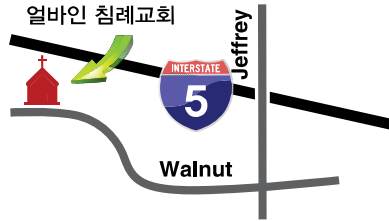
교육부 금요 모임 금 7:00 pm

**장년부 성경모임**

수요 제자 훈련 수 7:00 pm

Coffee Break 목 10:00am (여성반)

성경통독반 일 1:30pm



**섬김이 | Volunteers**

주방 봉사과 중보기도는 당분간 공란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08/01/21	08/08/21	08/15/21
주일예배 대표기도	문현준 목사	황의정 집사	강용중 간사
주일주방 섬김목장			
중보기도 담당			
	1 부		2 부
안내위원	김창기 안수집사, 권호선 사모		안학수 집사, 안우인 권사

제 49 권 31 호 | 2021년 8월 1일

# 혼은 영혼을 비기게 주소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벨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라라 (다니엘 12:3)

**주일예배 | The Lord's Day Worship**

	예배 순서
경배와 찬양 Worship & Praise	1)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음에서 2)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3)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4) 주께서 높은 보좌에
대표기도 Prayer	<b>문현준 목사</b>
특별찬양 Special Praise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은혜 찬양팀
광고 Announcements	<b>권태산 목사</b>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b>권태산 목사</b>
성경봉독 Scripture	<b>행 15:6-21</b>
설교 Sermon	사도행전#53-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나?" <b>권태산 목사</b>
찬양 Praise	<b>예수 나를 오라 하네</b>
축도 Benediction	<b>권태산 목사</b>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엘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 www.irvinechurch.com

## 1. 환영합니다

\*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림은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시간과 마음” 즉 “생명을 드림”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 2. 대면 예배 재개

\* 당분간 예배는 대면 및 온라인 예배로 오전 11:00 am 한 차례만 진행 됩니다. 성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3. 새 가족 교육

\*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사무실이나 새가족 팀장 (박민정집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4. 8월 생명의 삶

\* 생명의 삶 8월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사무실로 오셔서 픽업 바랍니다.

## 5. 교우 동정

\* 조윤영 집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새벽에 소천 하셨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를 예정입니다.

## 6. 특별 광고

\* 출교자들 (김현식, 신수연, 이석훈, 김선자(최혜나), 최진성, 송인영, 김길중, 김순천, 정영옥, 정기현, 신미경, 임태숙, 정원자, 양동일)은 더 이상 열반인 침례교회의 교인이 아니므로 교회의 허락 없이 교회 시설 (폐디오, 친교실..etc.) 을 이용 하거나 기물을 사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소동을 피우거나 온/오프라인 상에서 특정인들에 대해 인신공격과 더불어 거짓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함함으로써 교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선량한 성도들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분명히 합니다.

## 태산이 높다하되...

Innocent as Doves, Shrewd as Snakes(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얼마 전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였습니다. 주인공은 착한 가정입니다. 가출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주인공은 이혼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아빠가 무능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엄마에게 세뇌된 세 딸은 아버지를 격렬하게 공격합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동거하는 남자 때문이라고 밝히기만 하면 억울함을 벗는데, 딸들이 엄마에 대한 존경심을 잃을까 봐 아버지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공격을 참고 견딤니다. 여기까지 보다가 복장이 터져서 TV를 꺼버렸습니다. 이처럼 변명 않고 무조건 참는 것이 진정 착한 것인지?

오래 전 부흥사에게서 들은 어떤 시골 교회 목사님 얘기가 기억납니다. 어떤 처녀가 아기를 안고 나타나 목사님의 아이라고 하며 품에 안겨주고 사라졌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목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많은 교인들이 떠났고, 교회는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자신의 무고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으며 한 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묵묵히 아기를 키웠습니다. 몇 년 후 그 여성은 회개하고 찾아와, 아기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니라고 밝혀서, 마침내 목사님은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변명을 앓았던 이 목사를 칭찬하는 의도로 이 일화를 소개했던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인지? 침묵의 결과로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무너져버린 교회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위의 내용은 존경하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쓰신 내용입니다. 저는 요즘 갈등하고 있습니다. 입을 닫고 계속 당하고 참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 생각해 하나님께 해결 하시도록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 이제 저들의 거짓과 모함을 다 드러내고 할말은 하면서 같이 싸워야 할지...무엇이 교회를 위한 방법일까요?

###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

박정직 목사 (원로), 권태산 목사 (선임/목장총괄/예배/선교/심방), 문현준 목사 (행정/EM), Joel Pak 전도사 (중고등부), David Kim 전도사 (유초등부), 문보란 전도사 (유아 유치부), 황경숙 집사 (성가대 지휘)

### 교회를 섬기는 안수집사

김창기, 황평강